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 척도(WSBS_PECT)의 타당화 :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판별력

이경화* · 조준오 · 심은주†
(*부경대학교 · 부산대학교)

Validation of the Workplace Spirituality Belief Scale for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 : Discrimination of WSBS_PECT on Happiness and Career Maturity

Kyeong-Hwa LEE* · Jun-Oh JO · Eun-Joo S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WSBS_PECT (Workplace Spirituality Belief Scale for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 using discriminant analysis on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career maturity. The data from 523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through t-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the higher group in workplace spirituality belief significantly gets more scores of happiness and career maturity than the lower group, 2) 1 factors of the WSBS_PECT has discriminant power on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3) 2 factors ('meaning for life' and 'belief on calling for ECE teacher job') of the WSBS_PECT are effective to discriminate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career maturity. Further statistical works are supplementary needed to validate the WSBS_PECT and to increase its' feasibility.

Key words :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 Workplace Spirituality Belief, Happiness, Career Maturity

I. 서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론적 고민과 삶에 대한 가치론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 근대사회의 지배담론을 형성하던 물질적, 실증적, 환원적 패러다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로 인해 복잡다단하고 비선형적인 사회에서 삶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 행복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체적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면세계의 성찰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영성은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이자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삶의 중심이 되는 신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영역을 통합하는 통일된 힘(Lee Eun-Chul & Kim Min-Jeong, 2010)을 의미

† Corresponding author : 010-6642-0882, linbin0277@hanmail.net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5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다. 오늘날 영성은 종교적 의미보다 실존적 의미로서, 내면적인 삶, 영적 삶, 개인적 경건, 완성의 추구를 지칭하는 포괄적이고 체험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상담,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영성 증진을 위한 실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영성에 직업이라는 맥락을 반영한 개념으로 ‘일터영성(workplace spirituality)’이 부각되고 있다. 일터영성은 일과 자신의 일터에서 행복을 찾아 자아완성을 이루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일 또는 직업이라는 맥락 내에서 영성을 정의한 것으로,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내면적인 세계를 중시하고, 초월성을 인식하며 상호연계성을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로, 일과 조직이라는 환경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더 나은 존재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인간의 본연적·심리적 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다(Noh Sang-Chung, 2013; Yu Gyu-Chang, Seo Jai-Hyun & Kim Jongin, 2010). 일터영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차원과 직업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의 일터영성은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게 하여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고 개인의 내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주관하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적 차원에서의 일터영성은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며,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Lim Jung-Su, Sim Eun-Joo & Lee Kyeong-Hwa, 2014).

일터영성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업무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e.g. Duchon & Plowman, 2005; Lee Jung-Ah, 2014; Komala & Ganesh, 2007; Singhal & Chatterjee, 2006)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일터

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 시기의 학습자들을 돌보고 있는 유아교사의 경우, 일터영성을 함양하기 위해 교사 개인의 삶과 유아교사직의 복합적 직무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는 신체적·지적·정서적 노동의 강도가 높아 소진을 경험하기 쉬운 직업군으로서, 그 어느 시기보다 발달적 변화가 큰 영유아에게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교사의 삶의 질이 곧 유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유아교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영성을 찾는 노력은 직업적 차원 뿐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는 유아교사의 영성이 직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Lee Kyeong-Hwa & Sim Eun-Joo 2013a, 2013b)이나 유아교사의 일터영성 개념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한 연구들(Lim Jung-Su et al., 2014; Lee Kyeong-Hwa et al., 2015b), 그리고 예비유아교사들의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연구(Lee Kyeong-Hwa · Jo Jun-Oh & Sim Eun-Joo, 2015a)가 수행되었으며,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유아교사의 일터영성을 논함에 있어 교사의 신념 요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신념(belief)은 교사의 교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으로서, 기관 내에서의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형태나 내용뿐 아니라 학급이나 유아교육기관의 분위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반 결정, 교수행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 Eun-Mi & Lee Kyeong-Hwa, 2014). 유아교사의 신념이 교육의 질을 담당하는 주요한 요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직 교사뿐 아니라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부터 예비교사의 신념을 이해하고 반성적 고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Oh Sun-A & Lee Soon-Deok, 2011).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실제 교수경험

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여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각오와 기본적인 신념, 태도, 가치가 형성되어 있다(Schommer, 1994). 교사의 신념은 이후 직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직태도와 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교실에서의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교직을 위한 전문적인 준비와 교수능력의 향상 등 교육효과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Choi Mi-Sook, 2004). 이러한 점에서 유아교사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Lee, Kyeong-Hwa 등(2015a)은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을 측정하는 척도(Workplace Spirituality Belief for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 WSBS_PECT)를 개발하였다. WSBS_PECT는 ‘삶의 의미에 대한 자각(8문항)’, ‘유아교사의 소명감에 대한 신념(5문항)’, ‘교육공동체 내의 관계에 대한 신념(3문항)’, ‘공동체의식에 대한 신념(5문항)’의 4개 요인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WSBS_PECT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고하면서 연구자들은 이 척도가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에게 적용 가능함을 주장하는 한편, 예비유아교사의 개인적 삶의 질이나 직업적 진로와 같은 변인들에 대한 판별력 확인 작업을 통한 타당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Lee Kyeong-Hwa et al., 2015a).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개인적 삶의 질과 관련하여 ‘행복감(happiness)’을 그리고 직업적 진로와 관련해서는 ‘진로성숙도’를 변인으로 설정하여 WSBS_PECT의 이들에 대한 판별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이며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McCowell & Newell, 1990)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심리특성

들에 대한 탐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행복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복감은 개인의 성장과 건강에 밀접히 연결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면서(Scoffham & Barnes, 2011;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학교교육의 맥락에서도 행복을 연구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개인적 삶의 질을 가늠하는 요소로서 행복감을 설정하여 WSBS_PECT가 이를 판별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직업적 진로와 관련해서는 진로성숙도를 설정하여 WSBS_PECT의 판별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진로성숙도란 개인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현명하게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숙의 정도를 의미한다(Shin Seung-Won, 2013).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환경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일련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서,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를 정하는 것은 개인의 미래 삶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Ko Gyeongpil, & Sim Miyoung, 2014). 진로를 결정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의 진로성숙도를 파악하고 그러한 직업관련 요인을 일터영성신념이 판별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과 행복감, 진로성숙도를 측정 후, 일터영성신념에 따른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하고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일터영성신념의 판별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과정을 통해 WSBS_PECT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이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연구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넓히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

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터영성신념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일터영성신념의 판별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예비유아교사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일터영성신념의 판별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소재 2-3년제 3개 대학과 4년제 3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들이다. 조사대상은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수락한 대학을 임의표집하여 전체 재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580명의 자료 중 응답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응답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523명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대학 및 학년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istributions of participants (N=523)

Variable	Grade				Total
	1	2	3	4	
junior	147	167	39	0	353
college	(28.1)	(31.9)	(7.5)	(0.0)	(67.5)
university	58	47	39	26	170
	(11.1)	(9.0)	(7.5)	(5.0)	(32.5)
Total	205	214	78	26	523
	(39.2)	(40.9)	(14.9)	(5.0)	(100.0)

2. 연구도구

가. 일터영성신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 Kyeong-Hwa 등(2015a)이 개발한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 척도(Workplace Spirituality Belief Scale for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 WSBS_PECT)를 사용하였다. WSBS_PECT는 예비유아교사의 개인적 측면과 유아교사직의 직업적 측면에서의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삶의 의미에 대한 자각(8문항)’, ‘유아교사의 소명감에 대한 신념(5문항)’, ‘교육공동체 내의 관계에 대한 신념(3문항)’, ‘공동체의식에 대한 신념(5문항)’의 4개 요인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자각’ 요인은 ‘나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반성을 통해 내적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교사의 소명감에 대한 신념’ 요인에는 ‘유아를 교육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유아교사는 유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내의 관계에 대한 신념’ 요인은 ‘유아교사는 학부모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유아교사는 동료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체의식에 대한 신념’ 요인은 ‘유아교사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유아교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료들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로서 지녀야 할 일터영성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측정치의 범위는 최저 21점에서 최고 105점이며, 본 연구에서는 평점평균을 통계치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89, 각 하위척도는 .78에서 .86의 범위에 걸쳐 나타남으로써, 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참조).

나.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측정

<Table 2> WSBS_PECT

Factor	Item	Cronbach's α
Awareness of meaning of life (8)	1. I have strength in my inner life.	.86
	2. I have inner power to overcome difficulties in my life.	
	3. I'm trying to have inner power through reflection	
	4. I feel that human, nature, and universe are all interconnected.	
	5. My future job will raises my life up.	
	6. I have goals in my life.	
	7. I feel gratitude in my life.	
	8. I feel peacefulness in my life.	
Belief on calling for ECE teacher job (5)	9. I think that teaching children is meaningful job.	.86
	10. I think that early childhood teacher should be interconnected with everyone at workplace.	
	11. I think that early childhood teacher job is meaningful for society.	
	12. I think that early childhood teacher should be a person who affect to children's life.	
Belief on relationships in community (3)	13. I think that early childhood teacher should have a sense of mission for her/his job.	.78
	14. I think that early childhood teacher should mak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parents.	
	15. I think that early childhood teacher should make good relationships with senior teachers in the workplace	
Belief on membership in community (5)	16. I think that children's parents won't respect for their early childhood teachers.*	.79
	17. I think that early childhood teacher should be accepted as a member of workplace community.	
	18. I think that early childhood teacher should be help co-workers at workplace.	
	19. I think that early childhood teacher should solve the problems through interaction with people concerned at workplace.	
	20. I think that early childhood teacher should share joyfulness and indifficulty with co-workers at the workplace.	
	21. I think that early childhood teacher should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 co-workers at the workplace.	
	total (21)	.89

하기 위하여 Hills과 Argyle(2002)이 제시한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의 번역본(Kwark Hee-Kyung, 2011)을 사용하였다. OHQ는 Argyle, Martin, Crossland(1989)이 제작한 OHI(The Oxford Happiness Inventory)를 6점 Likert식 응답형태로 수정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전반적 행복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일 요인차원의 29개 문항(12개의 역채점 문항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나는 항상 전념하고 있거나 무언가에 관련되어 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하는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측정치의 범위는 최저 29점에서 최고 145점이며, 측정치의 평점평균을 산출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행복감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alpha=.91$ 로 나타나 신뢰로운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진로성숙도

예비유아교사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Jeong Hee-Young(2010)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척도는 개인이 진로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시에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Jeong Hee-Young, 2010), ‘결정성(6문항)’, ‘목적성(7문항)’, ‘준비성(5문항)’, ‘독립성(4문항)’, ‘확신성(4문항)’의 5개 요인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성’ 요인은 선호하는 진로 방향에 대한 확고성, 안정성,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하고 싶은 일 중 어떤 일을 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역문항)’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성’ 요인은 진로선택을 통해 개인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을 통해 보람보다는 편하고 돈이 되는 직업을 원한다(역문항)’, ‘적성에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역문항)’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성’ 요인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준비 및 계획,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를 뜻하는 것으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가 계획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적극적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성’ 요인은 자신의 진로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나는 내가 정한 기준대로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신성’ 요인은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Likert식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치의 범위는 최저 26점에서 최고 130점이며, 측정치의 평점평균을 산출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89, 각 하위척도는 .72에서 .89의 범위에 걸쳐 나타남으로써, 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참조).

<Table 3> Career maturity scale

Factor (n)	Item	Cronbach's α
decisiveness (6)	1, 2, 3*, 4*, 5*, 6	.89
orientation (7)	7*, 8*, 9*, 10*, 11*, 12*, 13*	.83
involvement (5)	14, 15, 16, 17, 18	.72
independence (4)	19, 20, 21, 22	.84
confidence (4)	23, 24, 25, 26	.88
total (26)		.89

* reversed item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 수준에 따른 행복감 및 진로성숙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터영성신념의 측정치 총점에서 상위 27%와 하위 27%를 규정한 후, 집단 간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의 판별과 진로성숙도 판별에 일터영성신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에 따른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문제 1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 수준에 따른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t-test result

Group		M	SD	t
Happiness	lower (133)	3.21	.31	-15.46***
	higher (151)	3.88	.42	
a	lower (133)	3.15	.71	-7.16***
	higher (151)	3.83	.89	
b	lower (133)	3.26	.50	-5.86***
	higher (151)	3.67	.67	
c	lower (133)	3.47	.41	-10.54***
	higher (151)	4.05	.52	
d	lower (133)	3.70	.58	-10.10***
	higher (151)	4.38	.55	
e	lower (133)	3.47	.51	-14.96***
	higher (151)	4.42	.56	
CM	lower (133)	3.41	.32	-15.06***
	higher (151)	4.07	.41	

a: decisiveness b: orientation c: involvement
d: independence e: confidence
*** p<.001

<Table 4>에서 보듯이,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에 따라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터영성신념이 높은

상집단(M=3.88, SD=0.42)은 하집단(M=3.21, SD=0.31)에 비해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15.46, p<.001), 진로성숙도 또한 일터영성신념의 상집단(M=4.07, SD=0.41)이 하집단(M=3.41, SD=0.32)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5.06, p<.001). 진로성숙도의 각 하위요인들, 즉 ‘결정성’(t=-7.16, p<.001), ‘목적성’(t=-5.86, p<.001), ‘준비성’(t=-10.54, p<.001), ‘독립성’(t=-10.10, p<.001), ‘확신성’(t=-14.96, p<.001)의 경우에도 일터영성신념의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하여 측정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0.1%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에 따라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행복감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의 판별력

연구문제 2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일터영성신념의 판별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일터영성신념을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행복감 집단을 설정하여 입력 방식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Table 5>에서 보듯이,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 총점을 투입변수로 그리고 행복감 집단(하집단 0, 상집단 1)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146.163, p<.001$). 이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이 행복감 집단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Wald= 72.361, p<.001) 일터영성신념의 총점이 높을수록 행복감 상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B=5.174), 전체 분류정확도는 76.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행복감의 하집단이 하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될 확률은 70.5%이며, 상집단이 상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될 확률은 82.4%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Table 5> Binary logistic model of WSBS_PECT on happiness group

Predictor	B	S.E	Wald	df	Sig.	Exp(B)	
a	WSBE_PECT	5.174	.608	72.361	1	.000	176.586
	Constant	-21.407	2.530	71.585	1	.000	.000
Chi-square(p): 146.163(.001), -2 Log L = 265.609, Cox & Snell R Square: .388, Nagelkerke R Square: .518							
overall percentage = 76.8%							

a. Variable entered on step 1: WSBS_PECT, dependent variable: career maturity groups (lower 0, higher 1)

<Table 6> Classification table

observed		predicted		percentage correct
		happiness group		
		lower	higher	
happiness group	lower	98	41	70.5
	higer	28	131	82.4
overall percentage				76.8
The cut value is .5				

3. 진로성숙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의 판별력

연구문제 3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일터영성신념의 판별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일터영성신념을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진로성숙도 집단을 설정하여 입력 방식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참조)

<Table 7>에서 보듯이,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 총점을 투입변수로 그리고 진로성숙도 집단(하집단 0, 상집단 1)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145.967, p<.001$). 이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이 진로성숙도 집단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Wald= 71.441, $p<.001$) 일터영성신념의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상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B=5.279), 전체 분류정확도는 80.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진로성숙도의 하집단이 하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될 확률은 78.4%이며, 상집단이 상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될 확률은 81.7%로 나타났다(<Table 8>참조).

<Table 8> Classification table

observed		predicted		percentage correct
		career maturity group		
		lower	higher	
career maturity group	lower	109	30	78.4
	higer	26	116	81.7
overall percentage				80.1
The cut value is .5				

<Table 7> Binary logistic model of WSBS_PECT on career maturity group

Predictor	B	S.E	Wald	df	Sig.	Exp(B)	
a	WSBE_PECT	5.279	.625	71.441	1	.000	196.090
	Constant	-22.021	2.613	71.003	1	.000	.000
Chi-square(p): 145.967(.001), -2 Log L = 243.550, Cox & Snell R Square: .405, Nagelkerke R Square: .540							
overall percentage = 80.1%							

a. Variable entered on step 1: WSBS_PECT, dependent variable: career maturity groups (lower 0, higher 1)

IV. 논의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행복감과 직업적 차원에서의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이 행복감과 진로성숙도를 효과적으로 판별해주는지를 검증함으로써, WSBS_PECT의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신념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일터영성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이 높은 집단이 신념이 낮은 집단에 비해 행복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이 행복감을 효과적으로 판별하는지 분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이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영성이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보고한 Hong Choo-Yon과 Yoon Mi(2013)의 연구와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은 영성지능과 관련되며 이는 개인의 삶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Jeon Jeong-Hee(2010)의 연구, 상담자를 대상으로 영성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행복과 영성이 높은 집단이 상담성과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한 Park Yeol-I(2013)의 연구, 그리고 현직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일터영성이 행복감을 예측해준다고 보고한 Lee Kyeong-Hwa 등(2015b)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성장, 치유, 변형을 이끄는 자기 인식 및 자기이해를 이끌고,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Steger et al., 2006)와도 관련이 있으며 유아교사

의 행복감에 대해 교사 자신의 영성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한 연구(Lee Kyeong-Hwa & Sim Eun-Joo, 2013a)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소망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행복에의 갈망과 추구는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숨은 동기가 된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영성적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Lee Kyeong-Hwa et al., 2015b). Noddings(2003)의 주장처럼, 행복은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교육은 개인과 집단적 행복에 중요하게 공헌해야 한다. 특히, 생의 이른 시기의 학습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는 가족을 제외하면 유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모델이라 할 수 있다. 행복이 인간 삶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고 그러한 행복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긍정심리학의 입장을 전제해 볼 때, 교사의 행복감은 교사 자신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의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다. 영·유아 교육기관이라는 조직의 입장에서도 교사의 행복은 교육적 성과와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인 것이다(Lee Kyeong-Hwa & Sim Eun-Joo, 2013a).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행복한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심리적, 실천적 노력으로서 예비유아교사의 단계부터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이 높은 집단이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 즉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터영

성에 대한 신념이 높은 집단이 신념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이 진로성숙도를 효과적으로 판별하는지 분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은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영성이 직업관련 태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힌 연구들(eg. Lee Kyeong-Hwa & Sim Eun-Joo, 2013b)이나 일터영성과 진로적응 및 직무만족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면서 청소년기나 초기성인기부터 일터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한 Yong Hyun-Woo(2016)의 연구, 대학생의 영성이 진로성숙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한 Min Yi-Seul(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성과 직무만족,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증명한 (Altaf & Awan, 2011; Gupta, Kumar & Singh, 2014; Kim Ae-Jung, 2014; Klein & Gow, 2011; Ko Eun-Rak, 2011; Wagner & Gregory, 2015) 결과나 일터영성이 높거나 내적동기를 지향하는 경우에 직무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이 증가하여 지식공유와 협력이 증가한다고 밝힌 Lee Sun-Young(2014)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Park In-Hyuk(2010)과 Lee Mi-Kyoung(2013)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직업에 대한 가치는 삶의 유지를 위한 수단에서 직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직업은 한 개인에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기본 욕구의 충족과 심리적·사회적 욕구 및 자존심의 충족, 애정과 소속의 욕구 및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Seo Hyun-Ah & Kim Mi-Ok, 2013). 그리고 진로 발달적 관점에서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과 직업의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직업적 선택을 구체화하고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Hwang

In-Sook, 2015). 진로성숙도는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과 진로 선택을 통합·조정해 나아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발달단계마다 수행할 발달 과업이 있고 이 발달과업의 인지 및 수행여부가 다음 발달단계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처럼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념은 개인이 발달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아와 사회의 직업인으로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Lee Song-Yi, 2014).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Yoo Jae-Yong et al.,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하루의 대부분을 유아들과 보내게 될 미래의 유아교사들에게 있어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교직에 대한 이해를 검토하고 유아교사직에 대한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에 따라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으며,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이 행복감과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W SBS_P ECT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판별타당성이 확인된 W SBS_P ECT는 향후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행복하고 영성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거나,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진로성숙도,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관련하여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을 하위 요인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판별력을 분석하였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들의 판별력 분석을 통해 행복감과 진로성숙도를 예측함에 있어 요인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시내 대학을 임의표집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는 표집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비유아교사들의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라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과 행복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시도를 통해, WSBS_PECT의 적용가능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신념이 교직원 관련 다양한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들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통해 인과성을 검증하여 WSBS_PECT의 타당화 하는 작업 또한 요구된다.

References

- Altaf, A. & Awan, M. A.(2011). Moderating a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of job overload and job satisfaction. *J Bus Ethics*, 104, 93~99.
- Choi, Mi-Sook(2004). A Study of the educational belief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ccording to career and type of institut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1), 27~47.
- Duchon, D. & Plowman, D. A.(2005). Nurturing the spirit at work: Impact on work unit performance, *The Leadership Quarterly*, 16(5), 807~833.
- Gupat, M. · Kumar, V. & Singh, M.(2014). Creating satisfied employees through workplace spirituality: A study of the private insurance sector in Punjab (Ind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2(1), 79~88.
- Han, Eun-Mi & Lee, Kyeong-Hwa(2014). Analyzing early childhood teachers' beliefs about young child via conceptual metaphor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3(4), 1~22.
- Hong, Choo-Yon & Yoon, Mi(2013). The effect of spirituality on happiness and depression of women in mid-lif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1), 219~242.
- Hwang, In-Sook(2015). The effects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spiritual maturity on care future - Focusing on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n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n Bible University.
- Jeon, Jeong-Hee(2010).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quotient and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Jeong, Hee-Young(2010).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 Kim, Ae-Jung(2014). Influence of social welfare center workers' spirituality on quality of their services: Focusing on mediation effects of job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 Klein, T. & Gow, K. M.(2011). Workplace spirituality and burnout among human service workers. *Wayfinding through Life's Challenges: Coping and Survival*.
- Ko, Eun-Rak(2011). A study of spirituality and job performance in Catholic social welfare workers.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 Ko, Gyeongpil & Sim, Miyoung(2014). The structural 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 19~38.
- Komala, K. & Ganesh, L. S.(2007). Individual spirituality at work and its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an exploratory study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The Business Review*, 7, 124~129.
- Kwark, Hee-Kyung(2011).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self-identity and teacher's efficacy belief,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Doctoral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Lee, Eun-Chul & Kim, Min-Jeong(2010). Developing a Scale of Spirituality for Korean Adolescen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ducation*, 18(3), 243~263.
- Lee, Jung-Ah(2014). Effects of spiritual leadership behavior on engagement and turnover intension through follower's workplace spirituality.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Kyeong-Hwa & Sim, Eun-Joo(2013a). Influences of spirituality and social support at work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2), 219~239.
- Lee, Kyeong-Hwa & Sim, Eun-Joo(2013b). The relation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pirituality with their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at work.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8(3), 179~199.
- Lee, Kyeong-Hwa · Jo, Jun-Oh · Sim, Eun-Joo(2015a). Development of the Workplace Spirituality Belief Scale for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7(5), 1290~1302.
- Lee, Kyeong-Hwa · Lim, Jung-Su · Jung, Hye-Young · Sim, Eun-Joo(2015b). Discriminant analysis of the WSSECT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7(2), 399~413.
- Lee, Mi-Kyoung(2013). The influence on the job satisfaction by the spirituality of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y : From the workers in Kkottongnae. Master's thesis, Kkottongnae University.
- Lee, Song-Yi(2014). The effects of self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1), 109~128.
- Lee, Sun-Young(2014). Effects of job-based psychological ownership on job engagement, knowledge sharing and cooperation: Moderating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and motivation orientation.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Lim, Jung-Su · Sim, Eun-Joo & Lee, Kyeong-Hwa (2014). Development of Workplace Spirituality Scale for Early Childhood Teacher.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6(4), 717~735.
- McCowell, I. & Newell, P.(1990).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 56, 239~249.
- Min, Yi-Seul(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identity and optim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Noddings, N.(2003). *Happiness and edu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h, Sang-Chung(2013). The impa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Oh, Sun-A & Lee, Soon-Deok(2011). Epistemological beliefs and perspectives about good teacher and good instructional practices between in-service and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10(1), 25~45.
- Park, In-Hyuk(2010). A study on influence of spirituality upon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 Park, Yeol-I(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unselors' happiness, self-efficacy, spirituality and counseling effect.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Schommer, M.(1994). Synthesizing epistemological belief research: Tentative understanding and provocative confusions. *Educational Psychological Review*, 13(4), 451~464.
- Scoffham, S. & Barnes, J.(2011). Happiness matters: Towards a pedagogy of happiness and well-being. *The Curriculum Journal*, 22(4), 535~548.
-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eo, Hyun-Ah & Kim, Mi-Ok(2013). The impa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haracter strengths t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job satisfac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1), 435~453.
- Shin, Seung-Won(2013).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in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16(1), 21~44.
- Singhal, M. & Chatterjee, L.(2006). A person organization fit-based approach for spirituality at work: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Human Values*, 12(2), 161~178.
- Steger, M. F · Frazier, P. ·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80~93.
- Wagner, J. I. J. & Gregory, D. M.(2015). Spirit at

- Work (SAW): Fostering a Healthy RN Workplace.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7(2), 197~216.
- Yong, Hyun-Woo(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adaptability, job satisfaction, and job burnout.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Yoo, Jae-Yong · Park, Ju-Yong & Woo, Chung-Hee (2015). Career attitude maturity, calling, and work as meaning affecting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mong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Nurs Adm*, 21(5), 480~488.
- Yu, Gyu-Chang · Seo, Jai-Hyun & Kim, Jongin(2010). Conceptual definitions and model of workplace spiritualit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anagement*, 18(4), 153~199.
-
- Received : 07 June, 2016
 - Revised : 22 June, 2016
 - Accepted : 04 July, 2016